

# 한국어 세계화의 실상과 링구아 프랑카의 가능성

전성운

순천향대학교 조교수

## < 목 차 >

- I. 머리말
- II. 한국어 세계화의 현황
  - 1. 긍정적 전망
  - 2. 실제적 인식
- III. 한국어 세계화의 방향
  - 1. 한국어 세계화 방향
  - 2. 광역소통어로서 한국어
- IV. 맺음말

Key words(중심용어): 한국어(Korean), 한국어 세계화(Korean as a international language), 외국어로서 한국어교육(teaching Korean as foreign language), 동아시아 권역(block of East Asia), 광역소통어(Lingua Franca), 표준어(standard language)

## 국 문 요 약

본고는 한국어 세계화 현황과 그 가능성을 점검한 것이다. 한국어 세계화에 대한 낭만적 전망이나 일방적 폄시(貶視)는 모두 문제가 있는 연구 시각이다. 이에 본고는 두 시각을 지양하고 한국어 세계화의 실상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토대로, 한국어 세계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대다수의 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 관련자는 최근의 급속한 양적 성장을 근거로 한국어 세계화 가능성을 낙관하고 있다. 그 구체적 근거로, 한국어가 실질적으로는 세계 8~9위의 언어 위상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어를 학습하는 외국인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어 교육이 정식 학문 분야로 자리를 잡았고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연구, 교육 방법, 정책 등이 정비되었음을 지적한다. 하지만 객관적인 판단에 따르면 한국어의 세계화는 아직은 갈 길이 멀다. 한국 내 영어의 지위, 영미 유럽권에서의 한국어 교육 현황, 정보화 영역에서 한국어가 차지하는 위상 등의 측면을 고려하면 한국어 세계화는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현 단계에서는 국제어, 광역소통어로서 한국어의 위상을 확보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세계화 전략이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동아시아 권역 내부에서 한국어가 링구아 프랑카의 지위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어 교육 관련 정책 당국, 민간 기구, 그리고 한국어 연구자의 교수 학습법 개발과 실천 의지를 지닌 한국어 교원이 삼위일체(三位一體)가 되어 끊임없이 노력

해야 할 뿐만 아니라 표준화, 현지화를 이루어야 한다. 아울러 한국 언어와 문화의 변이형을 허용하는 개방적 태도를 가지고 한국에 대한 총체적 이해와 수용을 도모해야 한다. 오컨대, 한국어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정서적이고 추상적인 낙관적 전망을 구체화하고, 한국어 세계화 전략을 선택적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

## I. 머리말

한국어 세계화의 가능성을 진단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실례로, 교육과학기술부는 애초, “2010까지 5만 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겠다는 Study Korea 계획을 발표했고, 이 계획이 2007년을 기점으로 조기 달성됨에 따라<sup>1)</sup> 후속 계획인 ‘Study Korea Project 발전 방안’을<sup>2)</sup> 수립 발표하여 2012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10만 명 유치를 위한 노력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외국인 유학생 수의 괄목할만한 성장은 한국어 세계화를 위해 지속적인 정책과 사업이 실시되고 있고, 괄목할만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sup>3)</sup> 그렇다고 해서 한국어 세계화가 무작정 괄목할만한 속도로 지속될 것이라고 낙관할 수는 없다.

한국어 세계화는 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모든 이들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때 달성 가능하다. 이에 본고는 한국어 세계화 가능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위하여 한국어 세계화의 현황 진단과 미래적 가능성을 점검함으로써, 한국어 세계화를 달성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어 세계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세계화의 현황을 전략적인 측면에서 반복적으로 점검함으로써 그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본격적인 논의를 전개하기 전에, 먼저 한국어 세계화에 대한 인식 및 그 범주를 살펴보겠다. 그간의 논의를 수렴하면, 한국어 세계화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두 개념 영역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 우선 설명적 진술과 관련된 측면이다. 한국어 세계화의 설명적 진술이란, 세계 사람들이 한국어가 형성 배경으로나 문자 체계에 있어 완전히 독립, 독창적인 것임을 인식하고 사용 인수로 보거나 우리의 고유한 역사와 독특한 문화 그리고 국력적(國力的)으로 볼 때 적어도 제2, 제3 언어로 배울 가치가 충분히 있고 배울 필요도 있는 당당한 하나의 외국어로서 위상을 가지는 것을 뜻한다. 나아가 많은 세계인들이 관심을 갖고 세계 유수의 대학에서 하나의 학문으로 교육되

1) 교육과학기술부의 발표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은 2007년 12월 기점으로 49,270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문화일보, 외국인유학생 2012년까지 10만 명으로, 2008. 8. 5.)

2) 문화일보, 위의 기사 참조.

3) 한국 내 외국인 유학생 수가 한국어 세계화 가능성을 진단하는 가장 확실한 지표라고 말할 수는 없다. 외국인 유학생 외에도 한국어를 외국어로 학습하는 학습자 분포와 한국어의 사용 범위를 측정할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외국인 유학생 수의 증가율이 한국어의 확산 및 한국어 세계화를 가늠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 가운데 하나인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다. 한국어의 위상이 높아지고, 한국어의 보급이 확대되지 않는 한 한국 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증가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한국 유학생 수의 증가 외에 다른 지표들은 이하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고 연구되는 상태를<sup>4)</sup> 가리킨다. 이와 같은 설명적(說明的)인 개념 규정은 대개의 한국어 교육 전공자들의 희망적인 전망을 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다른 하나는 지극히 사전적이고 개념적 진술이다. 이는 간단명료(簡單明瞭)하게 정의되는 바, 한국어가 본래 사용되던 지역이나 국가를 벗어나 전 세계로 그 영향력을 확장시키는 현상을 가리키는 것이<sup>5)</sup> 바로 한국어 세계화라는 것이다. 한국어 세계화에 대한 엄밀한 사전적 개념 정의로서 앞선 희망적 전망과는 다소 거리가 먼 실증적(實證的) 정의에 해당한다.

이상과 같은 두 개의 개념 규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다소 상반된 가치와 의미를 지닌다. 전자<sup>6)</sup>는 다소 민족적 측면에서 즉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규정이며, 자존적인 측면에서의 당위론적 인식에 근거한 설명적 진술에 해당한다. 이들은 한국어 세계화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그러했으면 하는 희망적 전망을 바탕으로 한 개념 규정에 해당한다. 이는 한국어 세계화를 당위론적 측면에서의 실천적인 개념으로 인식할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적극적 의미를 가진다. 이에 반해 후자는 한국어 세계화를 사실적인 측면에서의 실증적이고 객관적으로 규정한 개념이다. 한마디로 후자는 사전적 측면에서의 객관적 진술에<sup>7)</sup> 해당하며, 엄밀한 사전적 정의를 기반으로 한국어 세계화에 대한 객관적 평가의 출발점이란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전자와 후자의 인식 차이는 한국어 세계화의 실상과 세계화 가능성의 모색에 있어 서로 다른 접근 방법이 존재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다소 감정적이고 낙관적인 전망과 엄밀한 객관성에 근거한 규정에서 발생하는 인식의 차이는 한국어 세계화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함을 뜻하기 때문이다. 이런 특징은 또한 한국어 세계화의 개념과 그 실상 대한 정확한 인식이 전제될 필요가 있을 의미한다. 엄밀한 의미에서, 한국어 세계화에 대한 낭만적 전망이나 그 가능성을 객관적 근거를 빌미로 폄하(貶下)하는 태도는 모두 지양해야 한다. 전자는 냉정한 시각에서 한국어의 세계화를 진행하는데 자칫 방해가 될 수 있으며, 후자는 한국어 세계화를 위한 희망적인 동력을 상실케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한국어 세계화의 현황을 사실적으로 인식하고 그 한계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한국어 세계화를 위한 합리적인 방향과 방법을 발견해내야 한다. 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이 직면한 문제와 가능성을 적극 검토함으로써 발전적 변화를 모색하고, 진정한 의미의 세계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함으로써 한국어 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본고는 한국어 세계화의 현황을 파악한 후, 한국어 세계화의 가능성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세계어로서의 한국어 가능성에 대해 탐색하고자 한다.

4) 박영순, 세계화 시대 한국어의 위상, 국어교육학연구 제30집, 국어교육학회, 2007. 12.

5) 김희숙, 한국어의 세계적 전파 : 믿음인가, 가능성인가? 이중언어학 제21호, 이중언어학회, 2002.

6) 박영순, 앞의 논문, 2007.

7) 김희숙, 앞의 논문, 2002.

## II. 한국어 세계화의 현황

### 1. 긍정적 전망

한국어 세계화를 언급하는 대다수 연구자들은 한국어 세계화의 긍정적 현황을 다음과 같은 네 측면에서 언급하고 있다. 첫째, 모국어 집단의 규모란 측면에서 한국어의 위상을 가늠해보는 방식이다. 전 세계적으로 65억의 인구들이 6,000여 개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인구는 7,400만이며 이를 모국어 집단 규모의 측면에서 보면, 한국어는 독일어에 이어 세계 11위의 위상을 가진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객관적인 수치는 좀 더 긍정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며, 긍정적 해석의 결과 한국어의 위상을 세계 8~9위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 근거는, 먼저 중국, 일본, 호주, 베트남, 몽골 등의 국가에서 한국어가 5대 언어에 포함되어 있고, 미국의 SAT II에서 한국어가 아홉 번째로 포함되었다. 다음으로 모국어 집단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힌두어(인도, 2위), 우르두어(파키스탄, 7위), 벵갈어(방글라데시, 8위)은 자국 내에서만 사용되는 극히 제한된 언어이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하면 한국어의 세계적 위상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8~9위가 된다.<sup>8)</sup> 이런 평가가 가능한 것은, 객관적인 수치와 실질적 요소를 고려하여 최대한 긍정적으로 평가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한국어 학습자의 증가 및 세계적 보급 현황을 근거로 한 분석이다. 현재 한국어 강좌를 운영하는 외국 대학의 수는 62개국의 760개 대학을 상회하고 있다. 또한 한국어를 외국어로 가르치는 외국의 고등학교는 8개국의 800개 학교를 넘어섰다. 이런 현상은 최근 10여년 사이의 괄목할만한 변화이며, 한국어 세계화를 보여주는 긍정적 징후들이다. 요컨대 이와 같은 한국어 보급의 확대는 한국어가 세계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세계화 현상은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보면 더욱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중국 내 한국어의 보급은 괄목할만하다. 한국어세계화재단의 조사 보고에 따르면 중국 내 한국어과가 만들어진 대학이 70개 이상이며, 각과에 한국어전공 학생이 50~800명에 이른다. 물론 이것이 실체를 그대로 반영한 수치는 아니다. 실체는 이를 훨씬 능가할 수도 있다. 예컨대 중국 강소성 내 한국어과 설립 대학 및 한국어 전공 학생 수는 22개 대학의 6000명 상회하고 있다고<sup>9)</sup> 한다. 중국 내 한 개 성에서만 6,000명 이상의 대학생들이 한국어를 학습하고 있으니 중국 내 한국어 학습자 집단의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 충분히 어렵할 수 있다.

한국어 보급 및 확대와 관련해서는 몇 가지 지표가 더해질 수 있다. 먼저 한국내 외국인 노동자 수 및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 여성의 급증이다. 이들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으면서 한국어 학습이 요구되는 인구인 바, 이들은 현재 100만 명을 상회한다.<sup>10)</sup> 여기에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 수의 증가도 눈여겨보아야 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sup>11)</sup> 시험 응시자가 8만 명을

8) 박영순, 앞의 논문, 2007.

9) 문영자, 강소성 한국어 교육 현황 및 과제, 중국 지역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의의, 재중한국어문화교육 교수회, 제1회 국제학술대회, 북경 한국문화원, 2007. 12.

10) 원진숙, 다문화 시대 국어교육의 역할, 국어교육학연구 제30집, 국어교육학회 2007. 12.

상회한다. 여기에 한국어 학습자가 모두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하지는 않는다는 정황을 고려하면, 한국어 학습자 규모는 훨씬 크다. 이와 같은 수치를 고려할 때, 한국어 세계화는 단순히 말뿐인 장밋빛 전망이 아니라 실제적인 현상에 입각한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셋째, 한국어 교육 관련 외연 분야의 성장의 측면에서도 볼 수 있다. 국내 학계에서 한국어 교육의 학문적 위상의 제고(提高)는 뚜렷하다. 한 때 한국어 교육은 국어학과 국어교육의 하위 학문 분야에 불과했으며, 2002년에 이르러서야 교육부의 학문분야 분류 체계에서 독립 영역으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2004년부터 국어학연감과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분류에서도<sup>12)</sup> 독립된 학문 분야로 인정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에 따라 한국어교육 관련 전공 및 대학원 수의 증가로 이어져, 10개 대학 21개 대학원에서 한국어교육 전공자를 양성하고<sup>13)</sup> 있다. 여기에 이중언어학회나 국제한국어교육학회 등과 같은 한국어교육 관련 학회의 비약적 발전 및 학술지 발간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어교육 관련 학술대회의 급증 및 한국어교육 관련 논문의 제출 또한 괄목할만하게 성장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한국어교육과 관련된 학문적 진전이라 할 수 있으며, 한국어 세계화가 만들어낸 간접적 성과로, 한국어 교육을 튼실하게 이끄는 동력이 된다고 하겠다.

당연하게, 이와 같은 학문적 진전은 한국어 보급과 관련된 국가와 사립 기관의 수적 증가 및 질적 성장과 궤(軌)를 같이하고 있다. 한국어세계화재단, 국립국어연구원(세종학당), 국제교류재단, 국립국제교육진흥원, 한국문화원,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의 기관에서 한국어의 세계적 보급을 위한 각종 연구, 정책 수립 및 지원을 진행함으로써 한국어 교육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획기적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더욱이 국어기본법(2005년)의 시행으로 한국어교육의 체계화 방안의 법적 토대를 구축함으로써 한국어 세계화를 달성케 하는데 일조하였다.

이런 추세는 각 대학의 한국어 교육으로 이어진다. 각 대학은 국제화 지표를 위한 국제교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어(문화)교육원의 양적·질적 성장도 뒤따르고 있다. 요컨대 정부의 'Study Korea' 추진 및 각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전략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07년 말 기준 5만 명에 근접했으며, 이들을 교육하기 위한 한국어교원 양성과정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 즉 한국어 교육의 중추인 대학 교육의 급속한 성장을 통해 한국어 세계화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넷째, 한류와 한국어 세계화의 낙관적 전망의 측면이다. 한류로 대표되는 한국문화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일본에서의 한국문화 보급 및 전파가 주춤하고 있으나 중국, 베트남, 태국 등의 동아시아 각국은 물론이고 이란, 터키 등의 중동에서 한국 영화나 드라마가 유행하고 있다. 한국 문화의 전파로 인한 한국어의 국제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이다. 여기에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권역에서 한국의 경제적 위상 강화됨에 따라 한국어 학습자의 수적 증가는 물

1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보도 자료(www.topik.or.kr) 2007년 10월 기준.

12) 한국학술진흥재단 학문분야 분류표 참조.

13) 서 혁, 한국어교육과 국어교육의 관계 설정-상호 발전과 세계화를 위한 과제, 국어교육학연구 제30집, 국어교육학회, 2007.

론이고 한국어의 교환 가치가 증대되고 있음을<sup>14)</sup>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국어 보급 및 세계화에 있어 국가의 경제력에 근거한 소프트 파워(Soft Power)의 중요성은 일찍부터 지적되어 온 바다. 한국 국가 경쟁력에 근거한 한국어 세계화 현상이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요소에 한국어의 과학성과 우수성은 한국어의 세계적 보급에 대한 잠재적 역량으로 존재한다. 한국어는 한글이라는 문자 체계가 완벽하게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며 교수학습을 하기에 쉽기 때문에 한국어 진흥에 유리하다.<sup>15)</sup> 실례로 라후(Lahu)족에 대한 한글 이식의 성공은<sup>16)</sup> 한글의 세계화 전략이 충분히 성공 가능한 것임을 짐작케 하는 척도로 언급되고 있다.<sup>17)</sup>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측면을 인정한다면, 다음과 같이 낭만적 주장을 전개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즉 한국어 세계화는 실현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한국어 해외 수출이 촉진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위 선양 및 국력 신장에 도움이 되어 국민들의 국가 민족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주고 애국애족의 정신을 함양할 것이다. 이에 따라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에는 선진국이 될 것임에 분명하다.<sup>18)</sup> 한마디로 한국어 세계화의 현황에 대해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 2. 실제적 인식

그렇다면 한국어 세계화를 최대한 객관적 판단했을 때는 과연 어떠한가. 위와 같은 낙관적 전망이 전적으로 타당한 것인가. 대부분의 한국어 교육 관련자들이 말하고 있는 한국어 세계화의 장밋빛 전망은 가능한가. 그러나 좀 더 엄밀한 시선으로 보면 위와 같은 것이 실체의 전부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한국어 세계화 현상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는 앞선 진단과는 다소 대척적 시각이 존재함을 밝히기 위해 한국어의 세계적 위상 및 보급의 실상을 다소 엄정한 측면에서 평가하고, 이어서 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의 실상을 고찰함으로써 한국어 세계화의 가능성을 점검해보도록 하겠다.

먼저 한국어의 세계적 위상 및 보급의 실상이란 측면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한국 내 영어의 위상 및 교육 강화 현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영어의 위상을 면밀하게 따져보면 앞선 수치들에 대한 긍정적 평가나 전망에 대한 낙관적 견해와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영어 공용화의 필요성은 한국어 세계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시발의 시점에 이미 제기된 바 있다. 영어공용화는 영어가 국제어이므로 한국의 세계화 성취를 위해서는 영어를 공용어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sup>19)</sup> 것이 그 주장의 요체이다. 이렇게 한국어 세계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 국내에서 영어의 세계적 지위가 강조되는 현상은 왜 발생하고 있는가? 이것은 여러

14) 김희수, 앞의 논문, 2002.

15) 박영순, 앞의 논문, 2007.

16) "한글, 라후 마을로 가다." MBC 2001. 10. 9일 방영.

17) 김희수, 앞의 논문, 2001.

18) 이런 전망은 한국어의 세계화를 전망하는 논문 대부분이 부분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바로, 한국어 세계화의 가능성을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견해를 종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런 전망이 매우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한 것임은 분명하다. 박영순, 앞의 논문, 2007.

19) 복거일, 국제어 시대의 민족어, 문학과 지성사, 1998.

측면에서 시사적이다. 한국어 세계화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 영어의 지위는 더욱 강화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와 같은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즉 한국어 세계화에 비례하여 영어의 위상은 높아질 것이다. 이는 한국의 경우보다 세계화의 유리한 위치를 선점한 일본에서도 영어공용화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에서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결국 이는 한국어 세계화가 영어공용화의 시도란 측면에서 본다면 현상의 일부만 주목한 것이며, 영어의 지위 강화란 측면에서 본다면 허상에 가깝다고 할 수 있고 오히려 한국어의 세계적 위상은 점점 위상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여기에 세계화의 중심이라 할 영미문화권 내에서 한국어의 위상을 고려하면 그러한 판단이 더욱 옳게만 보인다. 사실 영미문화권 내의 한국어 위상은 여전히 미약하다. 비록 최근 10년 사이 미국 내의 한글학교 수가 증가하고,<sup>20)</sup> 한국어 강좌를 개설한 대학이 1990년 25개에서 2007년 기준 140개로<sup>21)</sup> 증가했으나 이는 사실상 한국인 2~3세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수업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유럽에서 한국어 강좌 개설한 대학의 수적 증가는 거의 없다.

이것은 또한, 한국어가 지닌 사용가치 대비 교환가치(交換價値)의 국지성(局地性)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한국어는 한국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산업연수생 혹은 한국 기업과 관련한 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동아시아 지역에서만 교환가치가 존재할 뿐이다. 동아시아 지역을 벗어난 기타 지역에서 한국어는 교환가치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sup>22)</sup> 요컨대 한국어의 세계적 보급이 얼마나 제한적인지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의 세계적 보급은 경제와 문화에 편승한 측면이 강하며, 한국어의 세계화는 GNP로 대변되는 국가 경쟁력 혹은 문화 산업으로 대변되는 소프트 파워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겠다. 결국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진행되는 한국어의 세계화에 대해 낙관적 전망으로 일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 할 것이며, 한국어의 세계화는 그 실상보다 과장된 채 장밋빛 전망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해도 그리 틀리지 않다.

둘째, 위와 같은 주장의 한 측면에는 한국어 교육의 실상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한국어 교육은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질적 열악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먼저 한국어 교사의 자질과 능력의 문제를 보도록 하자. 현재 한국어 교육의 팽창에 따른 한국어 교원 확보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국외에서 진행되는 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에 종사하는 경우는 말 할 것도 없고, 국내 대학 소재 한국어(문화)교육원이나 유학생을 교육의 경우에도 교육 환경, 교육 내용 등이 열악한 경우가 많다. 기본적으로 양질의 교원 부족 및 대학의 적극적 지원 체계 미흡에 따른 것이라 하겠다.

한국어 교원 혹은 한국어 교육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전공 학과나 대학원이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120시간의 기본 교육 과정을 진행하는 한국어교원 양성 과정 역시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적지 않은 대학의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은 한국어교육과 무관한 교수진이 한국어 혹은 한국어교육과 무관한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120시간의 교육만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어교원 양성 과정을 통해 필수 이수 시간을

20) 2007년 현재 1,017개로 파악됨.

21) 박영순, 앞의 논문, 2007.

22) 김희숙, 한국어세계화와 영어공용화론 시장 원리 문제, 한국어의미학 8, 한국어의미학회, 2001.

채울 뿐이며, 한국어교원 자격시험에 대비하는 수험 대비반처럼 변질되고 있다.<sup>23)</sup> 전공자의 부족, 양질의 한국어 교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한국어 교육의 확대와 한국어의 세계화를 전망하는 것은 선부르며 사상누각(沙上樓閣)을 근거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새로운 교수법의 개발과 교재 현지화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통합에 의한 표준화와 지역적, 문화적 특성 및 학습자의 요구 분석에 따른 교재와 교수법의 개발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사실 한국어 교수법은 영어교육에서 활용되고 있는 각종 이중 언어 교수법이 무비판적으로 수용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한국어의 언어적 특성에 맞는 새로운 교수법의 개발 없이는 한국어 세계화는 요원하다. 뿐만 아니라 해외 한국어교육의 경우 현지에 적합한 형태의 교재 부재가 자주 지적되고 있다.<sup>24)</sup> 물론 최근 문화 권역별 혹은 국가별 한국어 교재의 개발이 어느 정도 활기를 띠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sup>25)</sup> 그러나 아직도 충분하다고 말할 수는 없으며, 현재의 상황은 국내외의 모든 대학에서 교수자의 편리나 학교의 편의에 따라 무차별적으로 교재를 개발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하여 그다지 적절하지 못한 교재가 난개발(亂開發)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하여 체계적이고 현지화된 교재 개발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여기에 한국어의 세계적 보급과 관련된 제반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 한국어 세계화를 위한 정부 및 각종 단체의 여러 정책들이 난립하고 있다. 정부의 각 기관은 중복된 사업을 통폐합하고, 각 대학에서 진행되는 유학생 교육에는 표준화된 모델이 도입되어야 하며, 한국어 세계화는 대학의 국제화 지표를 위한 전시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구조에 놓여<sup>26)</sup> 있다.

여기에 해외 한국어교육원 설치 및 유학생 유치 전략의 체계성과 각 대학별 위계성이 결여되어 있음도 문제이다. 각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출혈적인 과다 경쟁을 벌이고 있다. 유학원을 통한 무차별적 학생 모집이 여러 폐해를 낳고 있음은 이미 누차 지적된 바 있다. 객관적인 측면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무조건적 초치(招致)가 대학의 국제화나 한국어 세계화에 절대적으로 기여하는 것은 아니며, 한국과 한국어에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23) 전성운, 한국어 교사 양성 과정의 진단과 전망, 중국 지역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의의, 재중한국어문화 교육교수회, 제1회 국제학술대회, 2007. 12.

24) 오상순,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과제, 한국어문화의 세계화, 충남대 인문과학연구소, 2005.

25) 한국어 교육에 있어 문화 교육에 대한 연구만 보더라도 한국어 교육에 대한 연구가 일대 도약하던 시기인 1995~96년 즈음에 논의된 방안이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선 최근 그 결실을 맺고 있다 (김영자, 독 일사회 안의 한국어 문화교육과 교재검토, 이중언어학 12권, 이중언어학회, 1994 ; 권순희, 언어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한국어 교육의 교재 편성 방안, 새국어생활 6-3, 국립국어연구원, 1996 ; 야마모토 아키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재와 일본어 교재의 문화 내용 비교 연구: 초급 교재를 중심으로, 경성대 교육대학원, 2003 ; 강현주, 재외동포 학습자를 위한 한국문화교재 개발 연구,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2008. ; 황가이, 인도네시아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 문화 항목의 설정에 대한 연구,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2008 ; 카드라위 사미라, 아랍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 언어 및 문화 교육과정 개발, 상명대 석사학위논문, 2008).

26) 대부분 대학의 한국어 교육은 대학 평가에서 국제화 지수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어(문화)교육원 역시 한국어 교육을 위한 제반 정책을 실시하지 않는다. 오히려 유학생 유치를 통한 국제화 지표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외부 평가기관으로부터 보다 나은 평가 점수를 받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어(문화)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한국어(문화)교육이 국제교류에 종속되었다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어(문화)교육의 실체성을 획득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문제이다.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한마디로 한국어 세계화를 위해서는 정부기관, 대학의 한국어(문화)교육원, 유관 민간단체 등이 좀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추진 전략을 수립해야 할 실정이다. 이와 같은 작금의 현실은 외국인 유학생의 양정 팽창이 한국어 세계화와는 다소 무관하게 진행된 것임을 말해준다. 즉 대학의 한국어 교육 성장이 사실상 한국어 세계화와는 별다른 관계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셋째, 한국어의 우수성과 한국어 세계화의 낙관적 전망에 대한 측면이다. 그간 많은 학자들은 한글의 언어적 과학성 및 우수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언어의 우수성이 세계어로서 한국어의 지위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바다. 또한 모든 언어는 그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언중(言衆)에게는 가장 우수한 언어이며, 모든 언어는 모국어 화자에게 가장 강점을 가진다.<sup>27)</sup> 한마디로 언어학의 관점에서 보면 언어 간의 우열, 우수성의 차이는 없는 셈이다. 더욱이 한글이 과학적이며 체계적이라고 해도 그것이 곧 한글의 교환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 한국어의 우수성은 세계어로서의 지위를 보장해주는 척도가 아닌 것이다. 이것은 가장 체계적이며 과학적이라고 할 수 있는 에스페란토어가 세계어로 정착하지 못하고 사라진 것에서도 알 수 있다. 한마디로 과학적이거나 우수한 것만으로 한국어가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지는 못하며, 세계어로서 일정한 자격을 획득한 상태인 것도 아니다.

언어는 생명력을 가진 것이다. 언어의 생장과 소멸은 항용 볼 수 있다. 14-5세기 동아시아 여러 나라, 특히 중국 한자문명권의 주변에 있던 여러 민족의 언어들 가운데 한글이 유일하게 보존되고 있는 언어일 뿐이다. 언어의 우수성에 근거하여 교수법 및 정보화에 유리하며 세계화에 용이한 언어로 판단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며, 한글의 우수성만을 강조하며 세계어의 가능성을 지닌 것으로 낙관하는 태도는 희망에 불과하다. 교수법은 지속적으로 표준화, 현지화해야 하는 개발의 문제이며 정보화는 기술력의 문제임을 냉정하게 인식해야 한다. 언어의 비과학성과 비체계성은 충분히 극복 가능한 그 무엇일 따름이다.

넷째, 한국어가 세계어로서의 존립 가능성은 있는가와 관련된 측면이다. 냉정하게 말해, 세계어 여부를 판단하는 척도는 지식과 정보의 생산 및 소통, 축적과 관련된 문제이다. 현재 세계에서 생산되는 새로운 지식의 70%, 소통되는 정보의 80%가 영어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새로운 지식의 생산과 축적의 40%는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정보의 생산과 유통, 축적이 영어로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영어의 이러한 면이 지식 정보화 시대에 국제공통어 혹은 세계어로서 지위를 잃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이다. 한국에서 생산되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의 유통과 축적 또한 영어로 이루어지는 것이나 한국 대학에서 영어 강좌의 개설이 강조되고 있는 것 또한 이런 현상의 반영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어의 세계화는 곧 한국어의 학문적 역량을 강화, 지식과 정보의 생산, 유통, 축적을 한국어로 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영어가 세계어으로써 지위를 잃지 않는 것은 그 변이종과도 관련이 있다. 즉 표준 영어의 구심력, 강제력이 약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영어에는 표준화된 모델이 없으며 영국식 영어, 미국식 영어, 인도 영어, 호주와 뉴질랜드 영어 및 홍콩 및 아시아권에서의 영어가 각각 상이한 형태로 존재한다.<sup>28)</sup> 영어와 현지 언어의 착종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영어의 현지화가 이루어지고

27) Edwards, John, Multilingualism, NY, Penguin, 1994.

있다. 어떤 점에서 보자면 영어의 혼란이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영어의 수용성과 개방성을 의미한다. 규범적이거나 당위적인 측면에서가 아닌 언어의 생명성 혹은 언어 보급에서의 복잡성에 따른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현실이며, 이런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더 온당한 자세이다. 각국의 언어와 결합한 영어의 수용성과 개방성이 영어가 링구아 프랑카(Lingua Franca)로 존립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된다. 한국어 변이종이 존재하지 않는 현실은 곧 한국어 세계화가 요원함을 말해준다. 다양한 특성을 지닌 한국어, 일종의 링구아 프랑카로서 한국어가 존재할 때 한국어 세계화는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네 측면에서 보건대, 현 단계에서 객관적인 판단에 따르면 한국어의 세계화는 아직 요원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좀 더 심하게 말해서 세계어로서 영어의 확고한 지위에 대한 도전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일 수도 있다. 나아가 국제화 시대에 민족어의 세계화를 주장하는 것은 국제어의 모국어화를 주장하는 것과 동일한 오류, 편협함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할 수도 있다.

### Ⅲ. 한국어 세계화의 방향

그렇다면 과연 한국어 세계화는 가능할 것인가? 만약 가능하다면 그것은 어떤 방향에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이미 살핀 것처럼 현 상황에서 선부른 낙관만으로 한국어 세계화가 달성되는 것은 아니며, 한국어 세계화가 이미 상당한 진척을 이룬 것으로 과대평가해서도 곤란하다. 이에 필자는 한국어 세계화를 위한 기본적 방향성을 다음 몇 측면에서 설정해보도록 하겠다.

#### 1. 한국어 세계화의 방향

먼저 한국어의 세계화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것은 한국어의 세계화와 국가 경쟁력의 상관성 문제이다. 많은 연구자들은 한국어의 세계화가 이루어지면 한국의 국가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한 나라의 언어가 지니는 세계성과 그 나라의 국가 경쟁력은 사실상 무관하다.<sup>28)</sup> 예를 들면 인도, 필리핀, 말레이시아의 경우 세계화된 언어(영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국가 경쟁력이 이에 비례하여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sup>30)</sup> 이것은 또한 일본어와 독일어의 경우에도 언어의 세계화가 반드시 그들 국가 경쟁력을 제고(提高)하는데 일조했는가라는 점에서도 의문이 존재한다. 즉 한국어의 세계화가 국가 경쟁력의 차원

28) 김희숙, 앞의 논문, 2001.

29)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그러하다고 말 할 수는 없다. 즉 국가 경쟁력이 강화되면 그 국가의 언어가 세계적 경쟁력을 갖는 현상을 자주 접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어 세계화가 국가 경쟁력 강화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국가 경쟁력 강화가 한국어 세계화에 도움이 된다고 말할 수는 있다.

30) 김희숙, 앞의 논문, 2002.

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회의와 함께 한국어의 세계화를 추구하는 것이 과연 무엇 때문인지 근본적으로 회의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음을 뜻한다.

이것은 한국어의 세계화가 그 필요성과 실상에 근거하여 진행되는 것이 현명함을 뜻한다. 엄밀한 의미에서, 한국어의 세계화는 한국의 경제적 영향력의 자장 안을 중심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는 결국 한국어 세계화는 전략적 측면에서, 동아시아 권역 내부로 제한될 필요가 있음을 뜻한다. 한국어는 동아시아 권역을 벗어난 지역에서 세계어로서 성격을 지니지 못한다. 물론 현재는 동아시아 지역에서조차 완전한 광역 소통어나 세계어로서 위상을 가진다고 할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의 세계화를 전 지구적 차원에서 추구하고 진행하는 것은 그 실효성에 의문이 있으며, 국지적 측면에서 한국어 세계화를 도모해야 함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와 관련하여 한국어 세계화의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즉 한국어의 세계화의 범주를 어느 정도는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국어의 세계적 보급을 통한 세계화는 이상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실질적인 측면에서 한국어의 세계화를 추구하는 전략적 설정을 해야 함을 뜻한다. 다시 말해 유럽이나 영미 문화권을 중심에 두고 한국어 세계화를 추구하는 것을 이상적인 목표의 추구로 설정함으로써 한국어 세계화를 실제성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동일한 의미에서, 한국어 세계화의 정책 및 이와 관련된 각종 사업을 유럽이나 영미문화권에 초점을 맞춰 시행하는 것도 그 실효성에 있어 의문이다. 오히려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실효성을 갖는 동아시아 문화권에 대한 국제어로서 한국어의 위상을 확보하는 것이 더 온당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특정한 문화 권역 내부의 국제어, 광역 소통어로서 한국어가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어의 세계화의 일차적 목표는 동아시아 지역의 국제어 혹은 광역소통어가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어 세계화의 사업 역량 역시 동아시아 지역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어가 동아시아 각국에서 자생적 보급력을<sup>31)</sup> 갖출 때까지 집중적이고 지속적으로 각종 사업과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요컨대 한국어의 세계화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국제어, 광역소통어로서 한국어를 의미한다. 즉 현재적 관점에서 필요한 것은 한국어의 국제화이며, 전지구적(全地球的) 차원의 한국어 세계화는 이상적 목표로 설정하고 현실적 정책의 초점은 특정 권역 내부의 국제어로서 지위를 획득하는 것으로 설정하는 것이 옳다.

## 2. 광역소통어로서 한국어

그렇다면 국제어로서 한국어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방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앞서의 고찰을 통해 한국어 세계화가 일정한 측면에서 허구적 모습을 지녔음을 파악한 이상, 한국어 국제화 전략을 살핍으로써 실질적인 측면에서 한국어의 세계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31) 언어의 전파와 보급은 그 언어를 학습하고 사용하는 언중의 규모와 무관하지 않다. 마찬가지로 외국어로서 한국어의 자생적 보급 역시 학습자 집단의 규모와 무관하지 않다. 여기서 말하는 자생적 보급력이란 한국어의 보급이 특정한 지역 내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한국어 교육의 수요와 공급이 특정 권역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정도로 학습자 집단이 커진 경우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한국어 세계화의 단계별 모델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국어 세계화를 위한 단계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전제로 한 것이다. 현 단계 한국어의 위상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기반으로, 한국어의 국제어 지위 획득이 일차적인 목표이며, 이후 한국어의 세계화를 추구해야 함을 뜻한다. 즉 현 단계에서 한국어 세계화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위계화, 구체화된 전략을 수립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고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제안한다.

먼저 동아시아 권역을 중심으로 KFL(Korean as a Foreign Language)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한국어가 동아시아 각국에서 자체 보급 동력을 갖추도록 정책 및 유관 사업을 집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각국의 특정한 외국어 학습자 수가는 일정한 범위를 넘어서면, 그 나라에서 외국어 교육은 자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된다. 그러므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어가 자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정도가 될 수 있도록 KFL화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한국어가 동아시아 권역 내에서 KIL(Korean as a International Language)이 되어야 한다. 한국어가 동아시아 지역에서 의사소통의 수단, 정보의 유통과 축적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제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문화적 측면 나아가 일상적 측면에서 한국어가 사용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한국어가 동아시아 지역의 링구아 프랑카가 되어야 함을 뜻한다. 한국어가 동아시아 권역에서 링구아 프랑카로서 지위를 가질 때 한국어는 자체에서 재생산되고 전파될 수 있는 동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한국어가 링구아 프랑카가 될 때 한국어 세계화의 초석이 확보된 것이라 하겠다.

다음으로는 한국어의 국제어화 방안과 관련된 측면이다. 거시적 일반론의 측면에서 보면 한국어 국제어 전략은 국제적 문화 교류를 통한 한국학 또는 한국 언어 문학의 우수성을 해외에 널리 알리는 간접적인 방법과 해외 한국어 교육을 강화하는 직접적인 방법이 있다. 이는 한국어의 위상을 높이고 그 교육 체제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가진 정책 당국, 민간 기구, 그리고 한국어연구자의 교수 학습법 개발과 실천 의지를 지닌 한국어 교원이 삼위일체(三位一體)가 되어 끊임없이 노력하는<sup>32)</sup> 것을 의미한다. 즉 표준화를 토대로 한 일정한 수준의 현지화를 진행해야 하며, 현재의 한국어 교재 및 교수법 개발은 표준화 모델을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sup>33)</sup> 그러나 한편으로는 특정 국가나 지역 문화를 배경으로 한 현지화, 개별화가 요구되는 것은 물론이다.

이런 현지화 개별화는 한국어 수용성을 확보하는 길이기도 하다. 링구아 프랑카는 표준 한국어 교육만을 고수할 때 달성될 수 없다. 또한 한국어 교육만으로도 달성될 수도 없다. 한국 언어와 문화의 변이형을 허용하는 개방적 태도를 가지고 한국에 대한 총체적 이해와 수용을 도모해야 한다. 한마디로 한국어 세계화에는 왕도가 없으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자각해야 한다. 국가 경쟁력 강화, 한국 문화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하여 한국어 세계화에 대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집중할 때 달성 가능하다. 결국 현 단계에서 한국어 세계화는 그 목표를 분명히 하고 위계화된 전략을 수립해야 가능하다. 즉 정서적이고 추상적인 목표를 구체화하고, 전략을 선택적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

32) 박갑수, 국어교육 100년의 회고와 전망, 이중언어학회 13, 이중언어학회, 1996.

33) 한영목, 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의 현실과 세계화 전략, 새국어교육 제75호, 한국국어교육학회, 2007.

## IV. 맺음말

이상에서 한국어 세계화의 실상과 전망을 살폈다. 현 상황에서 한국어 세계화는 장밋빛 전망만 존재하는 것도 반대로 암담한 현실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한국어 세계화의 실상 대한 정확한 인식을 토대로 한국어 세계화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본고의 논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대다수 한국어 교육 관련자는 최근의 급속한 양적 성장을 근거로 한국어 세계화 가능성을 낙관하고 있다. 한국어는 실질적으로 세계 8~9위의 언어로 현재 한국어를 학습하는 외국인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어 교육이 정식 학문 분야로 자리잡았을 뿐만 아니라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연구, 교육 방법, 정책 등이 정비되었음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 단계에서 한국어의 세계화는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그것은 세계어로서 영어의 확고한 지위에 대한 도전이 사실상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한국어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현재에도 영어의 지위는 더욱 공고해지며, 세계에서 소통 및 축적되는 정보의 7~80%가 영어로 이루어지고, 새로운 지식 축적의 40% 이상이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것만으로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현 단계에서는 국제어, 광역소통어로서 한국어의 위상을 확보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동아시아 권역 내부에서 한국어가 링구아 프랑카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sup>34)</sup> 이 같은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어 교육 관련 정책 당국, 민간 기구, 그리고 한국어 연구자의 교수 학습법 개발과 실천 의지를 지닌 한국어 교원이 삼위일체(三位一體)가 되어 한국어 교육 방법 및 내용의 표준화, 현지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 한 방법으로 동아시아 권역을 중심으로 한국 문화 및 한국어 교육 및 보급을 위한 거점 시설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한국어를 링구아 프랑카로 성장시켜야 한다.<sup>35)</sup> 이것이 한국어 수용성을 확보함으로써 링구아 프랑카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라 하겠다.

결국 현 단계에서 한국어 세계화는 그 목표를 분명히 하고 위계화된 전략을 수립해야 가능하다. 정서적이고 추상적인 목표를 구체화하고, 전략을 선택적으로 집중해야 한다. 즉 한국어 세계화는 단순한 구호나 낙관적 전망만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 강화, 한국 문화의 보급 및 확산을 토대로 한국어 세계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집중해야 이를 수 있는 것이다.

34) 이와 관련하여, 북한의 조선어와 중국 내 조선족이 사용하는 조선어, 재일 교포들의 조선어 등을 동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어가 링구아 프랑카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결절점(結節點)으로 활용하는 방법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5) 이는 세종학당과 같은 경우가 그 구체적인 예가 될 수 있다. 다만 현단계에서 볼 때, 세종학당과 같은 경우는 세계를 대상으로 설치하여 그 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교육 내용이나 방법에 있어서 효율성도 떨어진다. 대상 지역을 동아시아에 국한하고, 한국어 보급을 위한 각종 전략도 집중할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 Edwards, John, Multilingualism, NY, Penguin, 1994.
- Kim Heesook, Which strategy is preferable for the export of Korean Culture: Globalization of Korean or Globalization of Hangul?, 이중언어학 제26호, 이중언어학회, 2004. 10.
- 강현주, 재외동포 학습자를 위한 한국문화교재 개발 연구,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2008.
- 권순희, 언어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한국어 교육의 교재 편성 방안, 새국어생활 6-3, 국립국어연구원, 1996
- 김영명, 세계화와 언어문제, 아시아문화 17,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2001.
- 김영자, 독일사회 안의 한국어 문화교육과 교재검토, 이중언어학 12권, 이중언어학회, 1994
- 김중섭,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화 교육 연구의 현황 및 과제. 이중언어학 제27호. 이중언어학회. 2005.
- 김진호, 한국어 세계화와 한국어 교육, 제22회 한말연구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문, 2005.
- 김희숙, 한국어세계화와 영어공용화론 시장 원리 문제, 한국어의미학 8, 한국어의미학회, 2001.
- 김희숙, 한국어의 세계적 진파 : 믿음인가, 가능성인가? 이중언어학 제21호, 이중언어학회, 2002.
- 문영자, 강소성 한국어 교육 현황 및 과제, 중국 지역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의의, 재중한국어문화교육교수회, 제1회 국제학술대회, 2007. 12.
- 박갑수, 국어교육 100년의 회고와 전망, 이중언어학지 13, 이중언어학회, 1996.
- 박갑수, 문화와 언어의 세계화, 자국문화의 세계화 전략과 과제, 충남대 인문과학연구소, 2006, 9-25면.
- 박영순, 세계화 시대 한국어의 위상, 국어교육학연구 제30집, 국어교육학회, 2007. 12.
- 복거일, 국제어 시대의 민족어, 문학과 지성사, 1998.
- 서 혁, 한국어교육과 국어교육의 관계 설정-상화발전과 세계화를 위한 과제, 국어교육학연구 제30집, 국어교육학회, 2007.
- 성광수, 한국어의 세계적 보급을 위한 언어정책 검토, 이중언어학회지 13, 이중언어학회, 1996.
- 야마모토 아키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재와 일본어 교재의 문화 내용 비교 연구, 경상대 석사학위논문, 2003.
- 오상순,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과제, 한국어문화의 세계화, 충남대 인문과학연구소, 2005.
- 원진숙, 다문화 시대 국어교육의 역할, 국어교육학연구 제30집, 국어교육학회 2007. 12.
- 이선이,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세계화를 위하여 :경희대 인문학 특성화 프로그램.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5.

- 전상인, 해외 한국학의 진흥을 위하여, 한국국제교류재단, 해외한국학백서, 을유문화사, 2007.
- 전성운, 한국어 교사 양성 과정의 진단과 전망, 중국 지역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의의, 재중한국어문화교육교수회, 제1회 국제학술대회, 2007. 12.
- 카드라위 사미라, 아랍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 언어 및 문화 교육과정 개발, 상명대 석사학위논문, 2008.
- 한영목, 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의 현실과 세계화 전략, 새국어교육 제75호, 한국국어교육학회, 2007.
- 황가이, 인도네시아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 문화 항목의 설정에 대한 연구,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2008.

Abstract

## A study on the phase of Korean as a international language and its possibility as a Lingua Franca

CHUN, SUNG WOON\*

This thesis aims to study on the phase of Korean as international language and its future prospect. The present phase of Korean as international language is not rosy either gloomy. Frankly speaking, the position of Korean as a international language is seventh or eighth in world, but English has strong power as a international language. At present, we have to effort to make Korean as a powerful international language.

The first step for Korean globalization is Korean to be a Lingua Franca in East Asia area. It is difficult for Korean to be a international language. And the way till destination is too far and tough. And also, Korean in East Asia area is close to the position of Lingua Franca. The second step try to be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in world. For this purpose, we have to recognize the position of Korean as a international language.

This means that the future of Korean as international language should be needed the objective cognition about position of Korean in the world language. And then, persons who concerned Korean-globalization, teaching-Korean educators, officers working at government organization, have to effort to accomplish for Korean-globalization.

■ 논문접수일 : 2008 10월 19일, 논문심사일 : 2008년 10월 20일, 게재확정일 : 2008년 11월 20일

---

\* Assistant Professor, Soon Chun Hyang University